

수석합격기
(제28회 법원행시 수석합격)

멀리보다는 눈앞의 고비를 극복



최 신 용

- 1982년 7월 생
- 충북 제천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대 4년 재학 중
- 2010년(제28회)도 법원행시 수석합격

I. 글을 시작하며

제시낙방후 다시 2010년 사시1차에 합격하고 제 52회에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와중에도 법원행정고시 2차시험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기간이 엇그제 같은데 합격자 발표에 이름을 확인하고 게다가 수석이라는 영광까지 얻게 되어 어리둥절합니다. 제가 합격수기를 부탁받았을 때 '내가 수석합격기를 쓰게 되다니'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수많은 훌륭한 합격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격수기를 쓸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 부끄럽습니다. 법원행정고시가 소수직렬인 탓에 시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 저 또한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의문점을 법원행정고시 합격수기를 통해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법원행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심스럽게 적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원행정고시가 사법시험과 과목이 동일하고 공부하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은바 비록 법원행정고시 합격수기이지만 사법시험준비기간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법원행정고시 합격자가 사법시험 2차유경험자이고, 저 역시 3번의 사법시험 2차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양이 적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 1차공부의 방법론

1. 2007년도 사법시험 1차시험의 실패

2005년 4월 군제대 이후에 학교에 복학을 하면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2006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고, 2007년을 바라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민법의 경우 김형배교수님 기본서와 김종원강의, 형법의 경우 이재상교수님 기본서, 신호진강사의 형법판례총정리와 신호진강의, 헌법의 경우 정회철강사의 기본서와 판례집 그리고 정회철강의를 선택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으나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어려웠고, 기본서를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였음에도 처음 응시한 2007년 사법시험1차에서 평균이 40점대가 나왔습니다. 기준점 없이 기본서 한줄한줄에 매몰되어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없이 그저 열심히만 한 결과 저조한 점수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2. 실패에 대한 반성과 2008년도 사법시험 1차시험의 합격

제 점수에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중에 2007년도 1차 합격한 고등학교 친구 병선이가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출제된 지문을 기본서에 표시하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시험점수가 저조한 것을 보고 공부양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판례집이랑 객관식문제집도 샀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만 늘릴 뿐 실제로는 기본서 한권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

운 실력에서는 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출문제를 완전정복하자는 목표로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위해 민법은 지원팀 교수님 기본서 형법은 송헌철강사님 형법신강 헌법은 정회철강사님 헌법기본강의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정일배강사님의 기출해설문제집, 형법은 이지민강사님의 기출문제해설집, 헌법은 정회철강사님의 기출문제해설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4~6월까지 학교수업을 병행하면서 기본서에 출제된 지문을 표시하였습니다. 처음엔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았지만 학기 내내 걸리고 체력 소모도 심한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1학기가 마칠 즈음에는 기출지문이 기본서에 표시되어 있어 무엇이 중요한 쟁점인지 부각되어 기본서를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출문제는 한번만 보지마시고 기본서 보기 전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읽고 나서 해당 부분의 기본서를 읽는 습관을 들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기본서와 기출문제 회독수가 동일합니다.

각 과목을 공부하는 기간을 되도록 짧게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부기간이 늘어나면 앞에서 공부한 부분과 뒷부분이 상호 연관되는 학습효과도 떨어지고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좀더 자신을 독려하게 되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민법은 15일, 형법이나 헌법은 10일 이

내에 보도록 노력하였고, 약간 길어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획에 맞게 공부하였습니다.

앞서 말한바대로 기출문제를 기본서에 표시하여 보면 거의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 판례는 기본서에서 다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차시험의 경우 2차와 달리 단권화가 거의 필요없다고 보이며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얼마나 더 충실히 반복해서 보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후배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기본서외에 판례집이나 문제집, 부속법령집등을 보아야 하는가 입니다. 전 기본서와 기출문제에는 필수이며 그 두 가지를 숙지하고 나서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전 판례집은 사지 않고 전문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도서관에서 판례집을 빌려서 읽었고, 문제집은 기출문제외에는 풀지 않았습니다.

헌법의 경우 부속법령집이 문제인데, 전 헌법기본강의 책을 수록된 것만 보기도 벅차다고 생각하여 별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2학기 때부터는 휴학을 하고 학교고시반에서 진도별 모의고사에 응시하였으나,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많아 진도에 큰 의미를 두기 보다는 해당 파트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의 2달 앞으로 다가오자 기출문제와 기본서를 4회독한 상태였습니다. 막판 정리는 민법의 경우 지금까지 보던 기본서는 보지않고 권순환강사의

핵심지문총정리로 정리하고 형법, 헌법은 보던 기본서만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시험을 며칠 남겨두고는 시험감각을 위해 연도별기출문제를 풀어보니 그동안 기출문제를 다 외우듯이 철저히 보아서인지 거의 틀리지 않아 합격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아드니 긴장이 됐지만 익숙한 지문들이 많아 무리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고, 그해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평가였음에도 85점을 맞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3. 재시의 실패와 2010년도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 1차시험 합격

재시를 보고 나서 시험을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락없이 총점 5점이 모자라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기회가 주어지면 3시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2010년도 사법시험1차 준비를 하였습니다. 기본서가 모두 2007년판이라 책을 바꿔야하나 고민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책은 그대로 보고, 당해 연말에 나오는 07.08.09최신판례집을 구해서 보았습니다. 공부 방법은 이미 다 알지만 재시에 떨어진 후유증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3시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적으로 이겨내는 것이라는 말들이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참고 이겨내고 시험을 치른 결과 87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차시험을 치르고 나서 합격점수가 나오자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 2차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제52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형법에서

문제를 잘못 읽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인질강도문제를 특수강도로 풀었습니다. 답안지를 거의 다 채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발견하여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형법에서 과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고, 평소 공직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마침 사법시험과 과목이 유사한 법원행정고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법원행정고시 1차를 준비하면서 제가 본 교재는 헌법의 경우 정회철저 기본강의 헌법, 형법은 송헌철저 형법신강, 민법은 지원립저 민법강의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시 기출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고시 1차의 경우 최신판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2010년도 최신판례를 추가해서 보았습니다. 2010년 6월말에 사법시험 2차를 치른 후 조금 휴식을 갖다가 7월 한달 동안 헌민형을 1회독한 후 8월 28일 1차시험전까지 5-2로 2회독, 총 3회독을 하였습니다.

법원행시 1차는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헌법, 민법, 형법 3과목 각 40문제씩 120문제를 쉬는 시간없이 120분동안 풀어야 합니다. 즉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법원행시 1차의 특성을 듣고나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5지선다중 옳은 것이 보이면 다른 지문은 읽지 않고 바로 다음문제로 넘어가면서 빠르게 풀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다 풀고 마킹을 하자마자 시험이 종료되어 진땀을 흘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법원행시 1차는 사법시험1차 준비와 동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민법의 경우 사시처럼 세부적인 판례는 나오지 않아 끝까지 지원립교수님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특히 어렵게 출제되는 바 헌법에 좀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행시의 경우에도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바 철저한 분석과 반복된 풀이 그리고 암기를 한다면 엄청난 경쟁률이지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달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기출문제를 3번정도 반복해서 보았고, 평균 91점을 맞아 합격을 하였습니다.

III. 2차공부의 방법론

1. 2009년 사법시험2차시험의 실패

(1) 공부한 교재와 강의

헌법은 정회철변호사의 사례단문, 행정법은 홍정선교수님의 기본서와 김연태교수님사례집, 민소법은 이시윤교수님 기본서와 이창한사례집, 상법은 김혁봉강사의 기본서와 사례집, 형법은 송헌철강사의 형법신강과 이재상강사의 사례집, 민법은 노재호 교안과 박승수사례집을 보았습니다. 강의는 헌법은 김유향강사, 행정법은 류준세와 성봉근강사, 민소법은 이창한강사, 상법은 김혁봉강사, 형법은 이재상강사, 민법은 박승수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2) 실패한 원인

학교를 다니면서 초시를 치르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신림동으로 거주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1순환 학원을 등록하고 공부는 서울 대학교 중앙도서관 5열람실에서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초시킨 이후에 긴장이 풀어진 탓인지 게을러졌고, 공부방향에 대한 갈피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별도의 운동을 하지 않아서 인지 시험준비 내내 체력이 바닥나서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려웠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 결과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모의고사 점수가 별 의미가 없음에도 저조한 점수로 인해 공부할 의욕도 생기질 않았습니다.

2순환때 역시 기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2순환강의를 듣고 공부장소도 신림동 독서실로 옮겼습니다. 바쁜 일정에 강의까지 듣고 정리하려면 매일 시간이 부족하였고 밀린 진도는 매꿔지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1순환까지 강의듣는 것을 마무리하고 2순환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3순환때는 공부하기가 너무 벅차고 학원에서 시험을 보긴 봤지만 문제의 내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포기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법시험 2차의 경우에 포기만 하지 않고 버티면 합격한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포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해보자는 생각에 다시 3순환 도중에 신림동에서 학교 고시반으로 거처를 옮겨 정리하였습니다. 학교로 돌아와서 공부하니 집중도 잘되고 어느정도 페이스를 맞춰 공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시험을 한양대학교에서 4일동안 열심히 치루었지만 총점 5점이 모자라 저공으로 불합격하였

습니다.

2. 2010년 사법시험 2차시험 재도전의 실패

제51회 사법시험에서 2차시험에서 총점 5점차로 떨어지고 다시 도전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1차합격 후 박자를 가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3시도전할 때는 후사법이 재시때보다 수월하게 느껴졌고, 기본삼법도 1차공부하면서 기본기를 다져 3순환을 따라가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법이 어려웠고, 행정선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바꾸려고 해도 책을 바꿀 여유는 없어 그냥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시 때 민법 점수의 중요함을 느끼고 민법사례를 매일 풀어보려고 했으나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커리큘럼상 막판에 3-1-1 각 3회독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일날 1교시인 형법에서 문제를 잘못 읽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인질강도문제를 특수강도로 풀었습니다. 답안지를 거의 다 채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발견하여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형법에서 과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날 민법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형법에서의 실수가 자꾸 떠올라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시험결과를 보니 총점은 넘겼으나 형법이 아닌 민법에서 59.xx점 과락으로 불합격했습니다.

주관식 점수는 예측하기 어려우니 시험이 끝날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3. 법원행정고시 2차합격

(1) 법원행시2차의 준비과정

제가 본 교재는 행정법은정선균저 행정법익기스 박정훈저 행정법사례연습, 민법은 노재호저 민법교안, 민사소송법은 이시윤저 신민사소송법 이창한 민사소송법연습, 형법은 송헌철저 형법신강하태훈저 형법연습, 형사소송법은 이재상저 신형사소송법 이재상저 신형사소송법연습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시 2차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법시험 2차에서 본 교재로 공부하였으나 행정법의 경우 홍정선저 행정법특강 김연태저 행정법사례연습이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져 3시가 끝나고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는 정선균강사의 행정법익기스를 보고 사례집은 박정훈교수님의 행정법사례연습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책을 바꾸는 것에 대해 불안감도 있었지만, 박정훈교수님 사례집을 통해 행정법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정선균강사님책 덕분에 행정법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경우 절차법이니만큼 기본서를 이해하면서 목차에 유의하면서 공부해야합니다.

그리고 민법이나 형법의 경우 여건이 되면 스터디를 통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사례를 해결해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약 65일동안 각 과목을 8-3-1 3회독을 하

였습니다.

법원행시 2차시험을 이틀동안 치르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를 반복해서 읽고, 쟁점을 부각되게 서술하였으며, 알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적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면서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고 이정도면 합격하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였습니다.

2. 사법시험2차와 비교해 주의할 점

(1) 단문집의 필요성

사시와 달리 단문의 비중이 커 단문집을 별도로 보아야하나 많을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단문집을 보면 양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법원행정고시 2차의 경우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중요한 주제가 주로 출제되므로 교과서의 목차를 암기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2) 기출문제의 중요성

법원행시1차와 동일하게 2차역시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행바이블이라는 책에서 법원행시2차에 출제된 주제를 분석한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니 시험에 출제된 주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 5년치 법원행시, 사시, 사무관승진문제를 구해 풀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제28회 법원행정고시2차 시험에서도 민법에서의 채권자취소권과 소멸시효의 중단, 행정법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문제, 형소법에서의 증거능력문제, 민소법에서의 공동소송문제 등은 기출문제를 통해 자주 접한 문제라

서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3) 답안지의 분량

법원행시의 2차답안지는 법무사답안지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총 15장이고 양면으로 작성할 경우 30면이 됩니다. 양에 대한 제한이 없다보니 답안지의 분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저같은 경우에는 민법과 형법은 양 보다는 논의 되는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10면 작성하였습니다. 행정법은 12면, 민사소송법은 16면, 형사소송법은 17면 작성하였습니다.

분량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쟁점을 부각시켜 충실하게 적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법의 경우 10면으로 양이 가장 적으나 점수가 가장 좋았고 민소법은 16면을 적었음에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IV. 법원행정고시 3차시험

면접에는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이 있는데, 전 법원행정고시 3차시험인 면접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집단토론 주제는 공무원 채용선진화 방안으로서 행정부에서 5급채용시에 시험을 통한 공개채용방식이 아닌 외부에서의 민간전문가를 특채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인가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토론은 40여분동안 진행되었고 토론자 12명이 한번씩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국사회와 같이 인사와 채용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특

별채용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좀 더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의 토론자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개별면접에서는 4개의 질문지를 미리 주고 그 중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20분간 프리젠테이션의 내용을 구상하도록 한 다음 3분간 간략히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면접관들로부터 개별질문을 받는 식으로 총 10분 동안 진행 되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의 질문 내용은 등기와 대장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등기를 계속하여 사법부의 업무영역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기안해 볼 것, 본인이 지방법원 형사과장으로 재직시에 실무관(8,9급법원직공무원)중 1인이 업무를 소홀히하고 동료직원들간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형사과장으로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한 것인지 기안해 볼 것, 최근 정부와 기업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워크” 즉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이 법원공무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기안해 볼 것 등이 문제로 출제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문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개별 질문에서는 비송과 소송의 차이점, 법원을 견학한 적이있는지, 견학한 소감등이 있었습니다.

V. 수험교재와 학원강의에 대하여

수험교재에 대해서는 남들이 많은 교재를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야 시험 직전 마지막 정리 때에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교재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는 앞서 공

부한 수험생들에게 어느정도 검증된 교재들이니 무엇을 보더라도 사실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교재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교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고민하기 보다는 자기에게 정 맞지 않는 교재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교재를 바꾸는 것이 시간상 많은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자신의 교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부에 전념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취약한 과목일수록 교재에 대한 신뢰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바 그러한 과목은 식사시간 이후에 휴식을 취하면서 근처 서점에서 혹은 대학 도서관에서 다른 저자의 교재도 읽어보면서 어느 교재가 자신에게 더 맞는지 비교해서 교재를 바꿀 것인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원강의는 1번듣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1,2차 공통된 것입니다. 사람의 차이겠지만 자신이 집중할 수 있다면 학원강의 보다는 동영상강의를 활용하여 빠르게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수험생이 하는 것이지 강사의 강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손 때물은 교재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반복하여 읽고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VI. 공부장소에 대하여

공부를 어디서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008년 1차 합격하고 거처를 신림동으로 옮길것인지 학교고시반에서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신림동에서 학원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신림동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좁은 원룸을 구해 생활해서 인지 방에만 들어오면 답답하고 혼자 누워서 잠이 들때면 외로움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신림동 생활이 너무 힘들어 사법시험 2차 막바지때와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한양대 고시반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고시반의 경우 운영상 어느 정도 규율이 따른다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습니다.

고시반에서 신림동 학원강사들이 실강도 해주고, 모의고사도 학원 순환에 따라 응시할 수 있고, 교수님들의 강평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단체 생활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선후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고 훌륭한 조언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규배형님께서 힘든 시기에도 여유있고 긍정적으로 사고할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동생 정수를 통해 위안과 자극을 동시에 받으며 심적으로 그리 힘들지 않게 공부했습니다. 기숙사비 면제·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도 많기 때문에 고시반을 적극 활용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학교에 고시반이 잘 운영되고 있다면 별 생각없이 신림동에 가지 마시고 학교고시반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VII . 공부습관에 대하여

공부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한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고(밥 혼자 먹기 등) 생활을 단순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고 (7~8시간이상)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보다 책상에 오래앉아 있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계획대로 성실히 공부했습니다. 공부시간 보다는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방향만 잘 잡고 집중하여 8시간 정도만 공부해도 꾸준히 한다면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럼프가 오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슬럼프나 잡념이 심하면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뛰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VIII. 마치며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

한 마음가짐과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돌이켜 보면 별일 아닌 일들이 그 당시에는 크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반드시 합격할 날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찾아옵니다. 저 역시 시험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너무 멀리 내다 보지 말고 지금 눈앞의 고비를 하나하나 헤쳐나가자는 마음가짐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어려서부터 제 뒷바라지를 해주시느라 고생하신 외할머니, 저를 믿어 주시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누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에 옆에서 힘이 되어 준 여자친구, 고등학교 친구들과, 법학과 동료 선후배 그리고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한양대 고시반 수석조교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